

화순, 아동·여성친화도시 정책 고도화 ‘시동’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6대 영역 진단 지역발전 방안 등 논의·모색...보완 과제 확인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이 아동·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전문가,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 중심 정책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아동친화도시 6대 영역에 대한 조사 결과와 군민 의견수렴 내용을 공유하며 향후 아동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자체의 필수 이행사항인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지역 실정에 맞는 아동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아동친화도시 전문 연구·검수기관인 ㈜모티브앤과 함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인증 기준에 따라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환경, 가정생활 등 6

대 영역을 중심으로 표준조사와 군민 의견수렴을 실시해 지역 아동친화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보고회에는 아동친화도시 내부 조정기구인 추진단과 민관협력기구인 추진위원회, 아동권리대변인 옴부즈퍼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나승은 대표는 실태조사 결과와 정책 제언을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주요 추진 과제와 정책 반영 방안, 기관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군은 2020년 12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받은 데 이어, 2025년 6월 2일 인증을 갱신해 2029

년 6월 1일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군은 이번 조사 결과를 아동정책 수립과 아동친화도시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아동의 권리가 균형 전반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여성단체 활성화 등을 위한 ‘화순군 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도 개최했다.

임지락 군수는 “제안된 소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화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화순군 여성단체협의회 행복간담회 단체 사진.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청



김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수가 국비 1815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 사업인 국립완도난대수목원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최근 정부대전청사를 방문해 산림청장과 면담을 가졌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청

‘완도의 미래’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조성 속도낸다

김신 군수, 산림청장 면담...총사업비 1815억 투입

김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수가 국비 1815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 사업인 국립완도난대수목원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최근 정부대전청사를 방문해 산림청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이 조기에 착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김신 군수의 선제적 대응이다.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통해 약

340억원이 증액된 총사업비 1815억원(국비 100%)을 투입하는 대형 국책 사업이다.

국내 최초로 조성되는 난대수목원으로 연간 수십만명의 방문객이 방문하고, 1조 원 이상의 생산 부가가치 유발 효과, 1만 여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신 군수는 “현재 완도가 인구 소멸,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기 착공이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으로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며 “군에서는 수목원 개원 시기에 맞춰 광주~완도 고속도로,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등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SOC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연도별 사업에 필요한 국비 확보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내 기업과 인력 등 완도군 가용 자원을 투입해 착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은식 산림청장은 “수목원이 기 후 위기 대응의 최단단 전조 기지로서의

역할은 물론 수목원·정원을 찾는 국민의 높은 사회적·문화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역 경제도 견인할 수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대표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완도난대수목원은 기존 완도 수목원 376ha 부지에 국산 목재를 활용해 건축될 ‘레이크 가든 센터’와 국내의 희귀 수종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 온실’, 수목원 최상단에서 식생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모노레일’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진도, 적극행정 종합평가 ‘행안부장관상’

군민 중심 행정 역량 입증...“현장 목소리 경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제6회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진도군 역사상 최초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으며,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4일 진도군에 따르면 김미순 진도군 부군수는 전남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참석해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행안부가 매년 전국 243개(광역시 17개, 기초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확산,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활성화 노력도, 이행 성과, 체감도 등 약 20개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진도군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우수공무원 선발·인사상 가점 부여, 사전상담(컨설팅) 제도 운영, 적극행정 점수(마일리지) 제도 시행 등 다수 부문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며, 전국 상위 30%에 해당하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장관상은 전국 우수기관 중에서도 광역시·도·시·군·구, 각 그룹별 상위 5위 이내의 뛰어난 성적을 거둔 기관에만 수여되는 상이며, 이번 수상을 통해 진도군은 군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행정 역량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동안 진도군은 일선 공무원들이 규정이나 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고 군민을 위해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왔다.

또 사전 상담(컨설팅) 제도를 통해 업무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적극행정 점수(마일리지) 제도와 인사상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이끌어냈다.

이재각 진도군수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일선 현장에서 규정의 틀을 유연하게 적용하며 군민 편의를 위해 애써온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행정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3@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는 최근 농축산 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청

나주, 폭염 장기화 대응 농축산 현장점검

축산농가·시설하우스 농가 등 방문...농업인 애로사항 청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농축산현장을 찾아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피해 예방에 나섰다.

4일 나주시에 따르면 김영백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지역 농가를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폭염 장기화에 따른 농작물 생육 저하와 가축 폐사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농가의 대응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피해 예방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국장은 먼저 산포면의 양계농가를 찾아 축사 냉방시설 운영 실태와 가축 건강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농가의 애로사항

을 청취하며 폭염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톨고추 시설하우스 농가를 방문해 하우스 내부 온도 관리와 관수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고 고온기 작물 생육 관리와 폭염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또 금천면 배과수농가에서는 과원 생육 상태와 관수시설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지속되는 고온으로 인한 일소 피해와 생육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기 관수와 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나주시는 올해 농축산 분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등 4개 사업에 총 10억8500만원을 투입하는 등 폭염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나주=조현천 기자

강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19일까지 지원사업 4차 모집...7개소 선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4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사업장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진군은 2023년 111개소, 2024년 61개소, 2025년 61개소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3차 모집까지 선정된 50개소를 지원했다.

4차 모집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7개소를 선정한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연매출액과 사업 운영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금은 시설 개선비 공급가액의 70%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부가가치세와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분야는 옥외 간판, 내부 환경 개선, 진열시설, 안전 예방 및 설비 개선이다. 간판 교체·설치, 도배·바닥·조명·가벽·차양막(여닝) 설치, 진열대와 판매대 개선, 소화·방범 설비 및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 또는 강진군 소상공인지원센터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임성수 강진군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고객과 상인 모두가 만족하는 쾌적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설 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함평, 벼 병해충 방제·발작물 가뭄 대응

여름철 농가 피해 예방 총력...예찰·적기 대응 집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여름철 벼 병해충 확산과 폭염·가뭄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병해충 방제 지원과 현장 중심의 기술 지도에 나서고 있다.

4일 함평군에 따르면 여름철 농업재해 예방을 위해 벼 병해충 방제 대행비를 지원하고 가뭄에 대응한 현장 기술 지도를 강화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벼 병해충 확산을 막기 위해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벼 재배면적 6000ha를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 대행비를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7월 말 기준 1차 방제 대상 3000ha에 대한 방제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병해충 발생 상황과 벼 생육단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병해충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찰하고, 병해충이 발생한 논에는 등록 약제 사용법, 적기 방제 요령,

농약 안전사용기준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여름철 폭염과 가뭄에 따른 발작물 피해 예방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는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지속될 경우 발생하는 발작물의 생육 부진과 수량 감소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군은 강수 부족이 지속되면 발가뭄이 ‘주의’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주요 발작물 생육 상황을 점검하며 아침저녁 시간대 관수·토양 수분 유지 요령 등을 현장에서 안내하고 있다.

문경모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여름철 농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지속적인 예찰과 적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차 벼 병해충 방제 가뭄 대응 현장 지도를 더욱 강화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원길 기자 6263739@